



유성은 Ph.D

학력

연세대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학사
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석사
연세대 실내건축학과 박사

이력

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

유성은 박사는 현재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. 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계획과 관련된 연구, 비용적 제약 하에서 차별적 디자인과 이와 연계된 정책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,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

지역사회기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

유 성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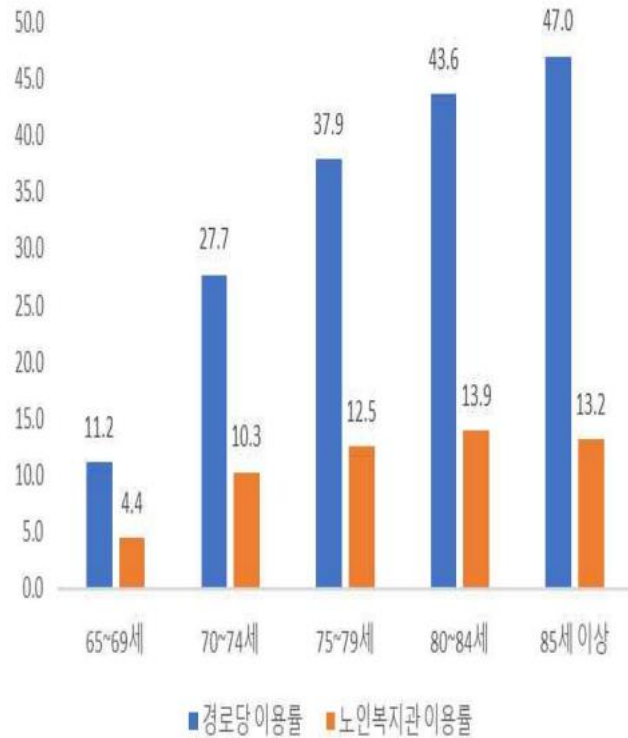
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

서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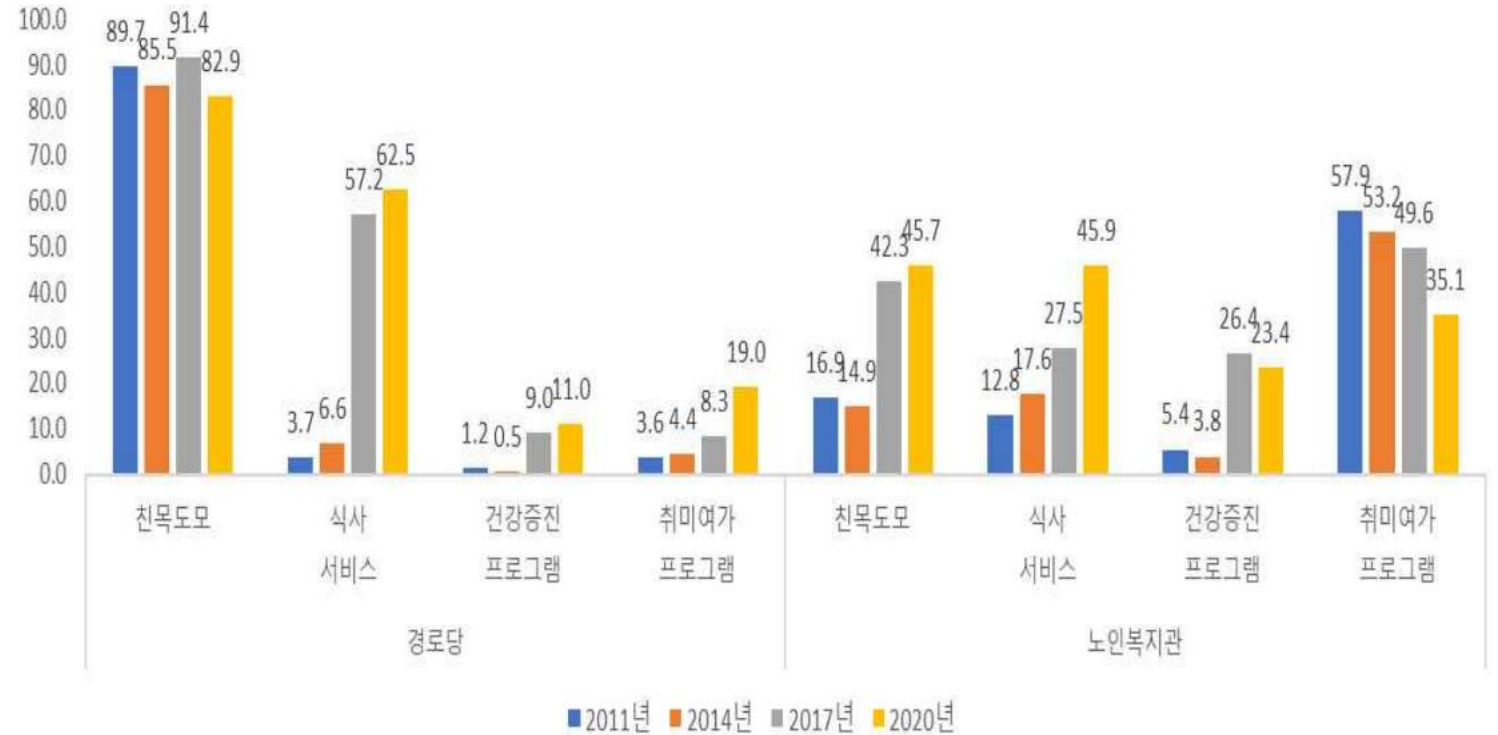
- 2023년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18.4%이며, 노령화지수는 167.1로 심각한 고령사회에 도달하면서 노인들이 주도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짐
-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극심화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거나 기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
- 노인이 여가를 많이 보내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.66%(2021년기준)을 차지하여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여가공간 중의 하나이나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시설환경이 낙후되어 열악한 경우가 많음
- 경로당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음

노인 여가 및 사회활동

• 여가문화시설 이용률



•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



(자료: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)

노인여가복지시설

-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-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(자료: 노인복지법 제36조)

노인여가복지시설

• 시설의 규모

가. 노인복지관 :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

나. 경로당 : 이용정원 20명 이상(섬 또는 읍·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)

다. 노인교실 : 이용정원 50명 이상

• 시설 기준

구 분 시설별	사무실	식당 및 조리실	상담실 또는 면회실	집회실 또는 강당	프로 그램실	화장실	물리 치료실	비상 재해 대비 시설	거실 또는 휴게실	전기 시설	강의실	휴게실	객실	공동 목욕장	기타 부대 시설
노인복지관	1	1	1	1	1	1	1	1							
경로당						1			1	1					
노인교실	1					1					1	1			

(자료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)

노인여가복지시설

- 설비기준

구 분 \ 시설의 종류	노인복지관	경로당	노인교실
설 비 기 준	가. 식당 및 조리실: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,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. 나. 프로그램실: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. 다. 물리치료실: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	가. 거실 또는 휴게실 :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	가. 강의실 :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(자료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)

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

시니어신문

≡ 종합 건강 사회참여 여가문화 인물

HOME > 이슈 > 사회복지

점점 설자리 잃는 경로당...주민에 개방하고 소통의 장 돼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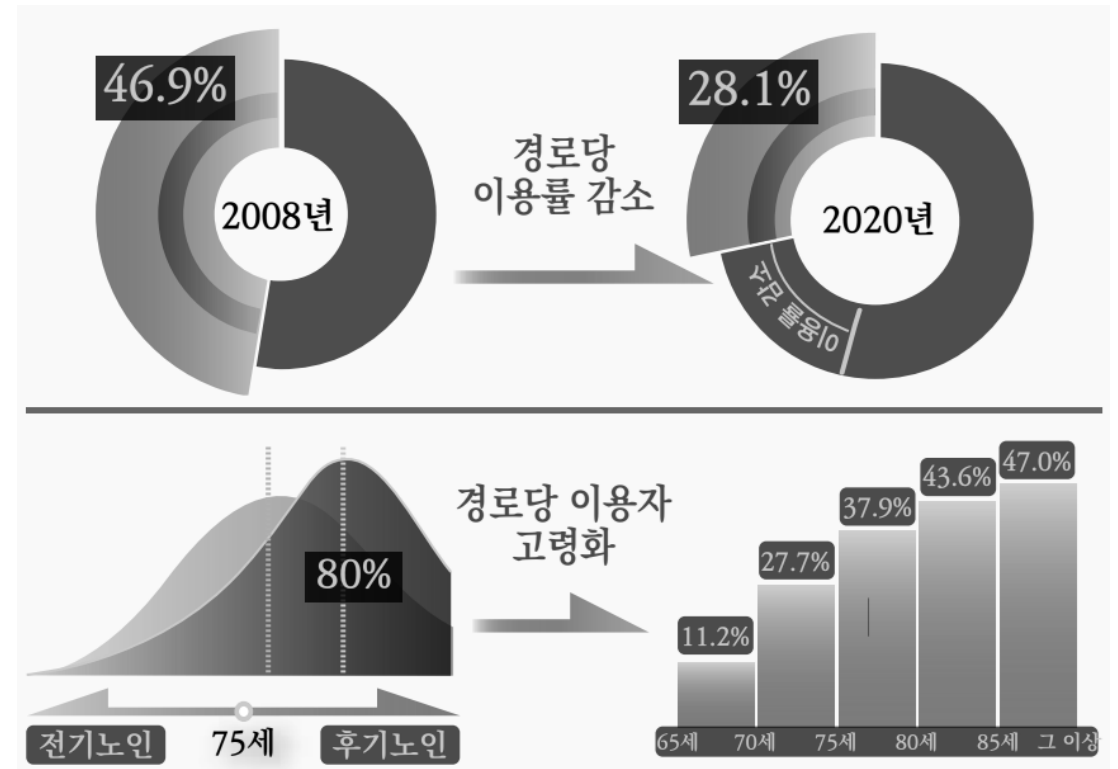
✎ 김지선 기자 | ✎ 승인 2022.03.04 14:14 | 💬 댓글 0



경로당 어르신들이 안마의자 점검 및 시연을 하고 있다

한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노년세대에게 외면 받고 있다. 우리나라는 올해 인구추계 상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%를 돌파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로당을 찾는 노인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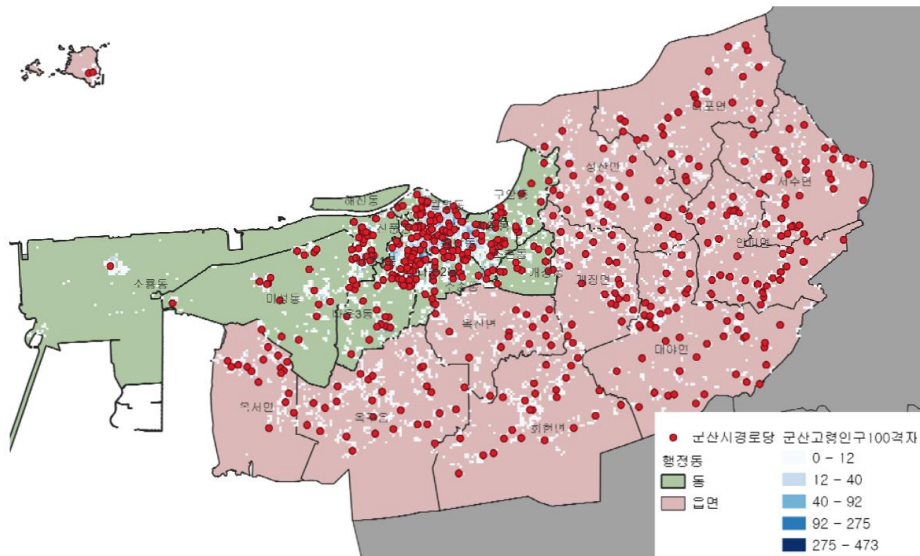
(자료: 시니어신문 2022.03.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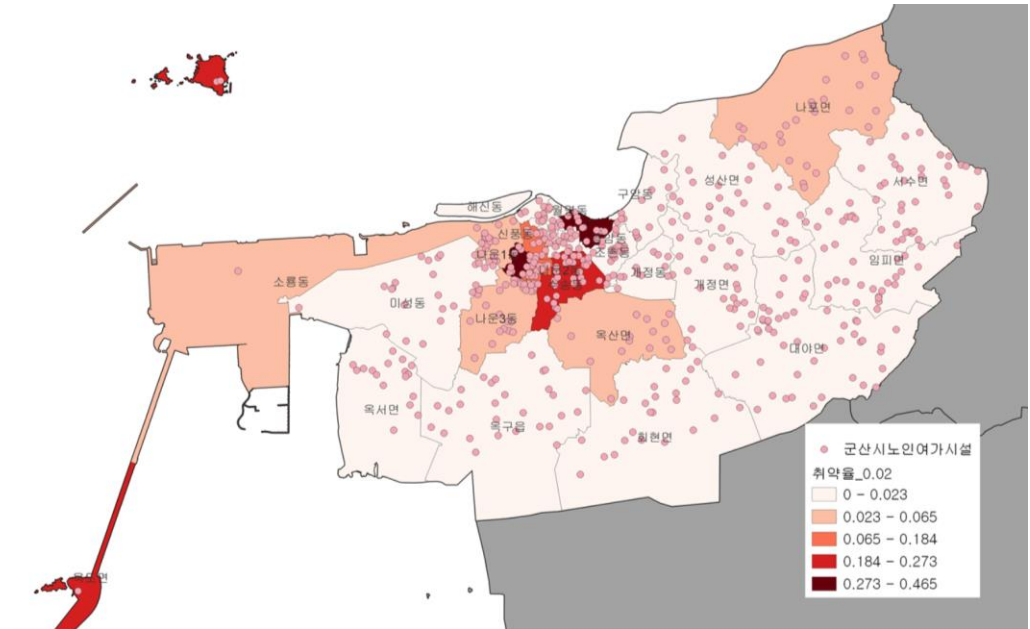
(자료: 2020년 노인실태조사)

군산시 경로당 현황

- 군산시 경로당 지리적 분포



- 군산시 경로당 취약지역



군산시 경로당 현황

- 군산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실태

구분		적용		보통		미흡		비고
		(개소)	(%)	(개소)	(%)	(개소)	(%)	
장애인주차장		11	29			27	71	
접근공간	경사로	12	41	7	24	10	34	경사없음:9개
	주출입구	26	68	4	11	8	21	
	현관	6	16	20	53	12	32	
실내공간	실내문	5	13	24	63	9	24	
위생공간	화장실	5	13	8	21	25	66	

* 유니버설디자인: 성별과 나이, 장애의 유무, 국적(언어)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, 건축, 환경,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 개념

- 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기준

구분	체크리스트항목		평가기준
주차장	장애인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는가?		○:있음 ×:없음
접근공간	경사로	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바닥재료 적용	○:5개 이상 △:3~4개 ×:2개 이하
		이동구간 연속적인 수평 안전손잡이 설치	
		출입문 옆 수직 안전손잡이 설치	
		출입공간은 계단과 경사로 함께 설치	
		경사로 기울기 1/18이하, 유효폭 1.2m 이상	
		계단코와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논슬립 설치	
	주출입구	출입문 통과 유효폭 0.9m이상 확보	○:3개 이상 △:2개 ×:1개 이하
		출입문 전후에는 활동공간 1.2m 이상 확보	
		문턱과 단차 제거	
		우천시 미끄럼지 않도록 출입구 상부에 캐노피	
	현관	쉽게 정리가 가능한 개방형 신발장 적용	○:2개 이상 △:1개 ×:없음
		지팡이와 우산 등 거치할 수 있는 보관공간	
		진출입시 바닥 위생을 고려한 현관 발판 설치	
		앉아서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는 간이벤치	
실내공간	실내문	문턱	○:2개 이상 △:1개 ×:없음
		문턱과 단차 제거	
위생공간	화장실	좌변기, 소변기 안전손잡이 설치	○:2개 이상 △:1개 ×:없음
		세면대 안전손잡이 설치	

지역거점공간으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례

서울특별시	부산광역시	대구광역시	광주광역시	인천광역시
				
화목경로당	남극경로당	원대3가 제2경로당	주월동 통합 거점 경로당	이화책방
▶ 2015년 시작하여 총 736개 - 카페·동아리형 180개 - 돌봄형 39개 - 학습형 306개 - 도서관형 13개 - 소득형 7개 - 영화관람형 98개 - 작은복지센터형 93개 ▶ 지자체별 전체 경로당의 20% 비율이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	▶ 경로당 수 총 2,327개 (2019.12월 기준) ▶ 2020년부터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경로당을 공유하도록 체육시설을 복합화 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함.	▶ 경로당 수 총 1,497개 (2018.4월 기준) ▶ 2019년부터 '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'을 진행 중이며, 4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. - 프로그램 운영 지원 - 리모델링 지원 - 경로당 인력 지원 -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	▶ 경로당 수 총 1,329개 (2020.1월 기준) ▶ 개방형 경로당 2018년 시작. ▶ 지자체별로 '소통경로당', '거점경로당', '마을복지문화센터' 등으로 개방형 경로당의 명칭을 달리 사용. 구별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.	▶ 경로당 수 총 1,505개 (2020.4월 기준) ▶ 2019년 남동구 '이화책방' 개방형 경로당이 선행된 바 있음 ▶ 2020년 개방형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·구립 경로당 10개소 선정 후, 테마에 맞춰 리모델링 진행.

결론 및 제언

- 65세이상 인구 구성비의 증가와 길어지는 기대수명 등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변화가 필요함
- 경로당은 접근성이 높은 여가시설이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이용이 잘 안되며,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전문인력이 상주하지만 접근성이 높지 않음
- 경로당은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면적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장소 제공의 기능이 아니라 여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
- 집단별, 시설별 개방성을 높여 공간적, 사회적 제약 없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, 시대적 흐름과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기능이 전환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되어야 함
- 앞으로 더 많은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할 것이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함

참고문헌

- 김주희, 오명원, 유성은(2022). 지역거점공간으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례조사.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, 24(3), 175-176.
- 유성은, 오명원(2023). 비수도권 중소도시 생활문화시설 취약 지역 분석 및 시설 계획 방향 제안. 대한건축학회 논문집, 39(7), 33-42.
- 이영선, 오명원, 유성은(2023). 군산시 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.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, 25(2), 57-60.
- 이영선, 이혜빈, 오명원, 유성은(2023). 군산시 경로당 현장조사를 통한 공간구성분석.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, 25(1), 316-319.
-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20).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. 정책보고서 2020-35.
- 노인복지법. 국가법령정보센터, <http://www.law.go.kr>.
- 김지선(2022년 3월 4일). 점점 설자리 잃는 경로당...주민에 개방하고 소통의 장 돼야. 시니어신문.